

長老職分論

전 호 진

(본 연구소소장, 고신대교수)

- | | |
|---------------|------------------|
| I. 구약의 장로 | V. 목사와 장로는 평등인가? |
| II. 신약에서의 장로 | VI. 장로의 임기제 |
| III. 치리장로의 역사 | VII. 결 론 |
| IV. 치리장로의 기능 | |

한국장로교회는 교회직분의 위기를 안고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문제로 분쟁하듯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나라는 논쟁, 장로는 성직자나 평신도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한때 분분했었다. 더욱 목사와 장로의 대립 갈등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R.B. 카이퍼도 이러한 대립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교회안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다스리는 자, 즉 치리장로와 치리 받는 자, 즉 목사가 있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은 진담이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어떤 경우에서 보면 이 말은 서글픈 현실로 여겨지고 있다. 매년 여러 교단에 회기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있다. 어찌서 장로가 목사에 대하여 방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기독교의 커다란 손상이 아닐 수 없다¹⁾.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등의 직분을 세우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1) R.B. 카이퍼,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 이창우역(서울:성광문화사, 1978), p.16.

(Perfecting)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엡 4:11f.) 장로직은 “유형교회의 질서의 완전함을 위하여”²⁾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인코로 Robert Thompson 이 말한 것같이 장로직은 장로교의 영광이요 힘이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장로직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바른 실천이 있을 때 교회가 발전할 것이다.

1. 구약에서의 장로

장로직은 이미 구약에 있었으며, 고대 이방인들도 장로제도를 운영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정치문답조례 제 5장 2절에 치리장로의 직분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으며(창 24:2; 50:7; 출 3:16; 4:29-30; 12:21; 18:12; 신 5:23; 시 107:32), 모세때에 백성의 대표로 장로를 세워 백성의 장소를 심판케 하였으며(출 18:21-25; 민 11:16-25), 그후 유대역사중에 장로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유대회당에 이 제도가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장로의 제도는 한나디로 동양의 경로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구약은 늙은이를 존경할 것을 가르친다. 잠 20:29 “젊은자의 영화는 그 힘ियो,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반이니라” 구약의경 지혜문서 2:10에서 인생의 허무를 논하는 중에 “백발한 성성한 노인이라 해서 존경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인에 대한 일반적 존경을 암시하고 있으며, 레 19:32에 너는 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였으며 잠 16:31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였다. 왕상 12:6에 르호보암왕은 솔로몬을 보좌하였던 노인들과 국사를 의논하였는데 그는 그 노인들의 “교도”를 거부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였다. 교회 치리의 중요한 직분인 장로란 용어가 늙은 자(Presbuteros)라는 단어에서 차용한 것은 경험적 권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예를들면 눅15:25에 말아들은 헬타어로 ὁ υἱὸς ὁ πρεσβύτερος 인데 이것은 상대적 의미로서

2) 칼빈, 기독교 강요 IV, 11:4; IV, 3:1

과 바나바는 각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워 양떼를 치게 하였다(행 14:23; 20:28). 그러나 예루살렘총회전에 교회에는 장로들이 이미 있었으며(행 11:30; 15:2) 예루살렘총회는 사도와 장로들로 구성되었다. 예루살렘의 장로에 대해 Thomas M. Lindsay는 사도행전 6장의 안수 받은 7인과 동일시한다⁹⁾. 장로제도가 초대교회에 이미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야고보서 등의 여러 본문에 나타난다. 신약에 사용된 장로의 개념에는 연장자(딤후 5:1, 2; 요 8:9), 조상들(히 11:2), 사도들(요이 1:1; 요삼 1:1; 벧전 5:1)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장로개념이 신약에도 이미 나타났다. 그러나 신약에 나타나는 장로에 대해 심각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곧 감독과 장로가 동일직분이나 혹은 지금과 같이 분리된 직분이나하는 문제이다. 행 20:17에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소집하고 고별사를 하는 중에 장로를 감독이라 했다(행 20:28). 딤후 1:5,7에 장로를 감독이라고 하였으며 딤후 3:1-7에 감독의 자격을 논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Lightfoot는 그의 빌립보주석에서 감독과 장로를 동일시 하였다.

Lightfoot외에 Edgar Loening, Fr. Loofs, P.W. Schmiedel 및 Lindsay등도 동일한 견해를 취한다. Lightfoot는 근거로서 (1) 행 20:17과 28; (2) 벧전 5:1-3에서 장로의 직책이 양무리를 치는 역할이다. (προσβυτιροί... ποιμάνετε... ἐπισκοποῦντες); (3) 클레멘트 1서에서 로마의 장로와 감독이 동일직분이다. (4) 딤후 3장의 감독의 자격 다음에 집사의 자격을 논하였다. 특히 딤후 5:17-19에 감독이 장로로 나타난다: (5) 딤후 1:5-7에 장로와 감독이 동일직분이다: (6) 수리아신약사본(the Peshito Syriac Version)에 감독(ἐπίσκοπος)이 장로로 번역되었다. (7) 제롬을 위시한 고대 교회의 견해는 사도시대에 장로와 감독이 동일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¹⁰⁾. Lightfoot는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장로와 집사의 2중구조였는데 2C중엽에 감독(목사), 장로, 집사의 3중구조로 변천하였

는데 왜 이렇게 변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방기독교회와 유대 기독교인 사이에 불화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재역할을 하는 감독이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¹¹⁾. 특히 Lindsay는 초대교회는 “이방의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 독립된 자치단체를 형성하여 목사나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즉 의장없는 회중교회적 치리기구이다¹²⁾. 이상은 초대교회의 교회적분은 장로집사의 2중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이론의 근거에는 또한 강력한 지도자로서 목사나 감독을 배제하는 민주주의적 회중 정치사상이 내포되었다. 따라서 이 이론은 교직 계급주의의 로마천주교와 감독주의의 감독정치를 배제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장로와 감독을 동일시하는 견해에 반대하여 다른 두개의 직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이론의 대표적 학자를 든다면 Edwin Hatch와 Adolf Harnack이다. 1883년 Harnack는 1880년 Oxford에서 행한 Hatch의 Bampton강의를 번역하여 소위 장로와 감독은 다른 직분이라는 Hatch-Harnack가설을 정립하였다¹³⁾. 이들은 주장하기를 장로는 젊은이(νεώτεροι)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재판의 역할을 주도하였고 감독은 집사와 같은 봉사직으로 교회재산관리와 예배인도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즉 장로는 家父長的 役割(Patriarch)을, 감독은 행정적 역할을 했다¹⁴⁾. Harnack은 교회조직을 셋으로 구분한다: (1) 사도, 선지자, 교사의 영적 혹은 종교적 기구로서 이것은 일종의 “은사적” 직분이요, (2) 젊은자들을 지도하는 유대교적 가부장적 조직인 장로제도, (3) 빌립보서 1:1에 나타나는 행정적 조직인 감독과 집사이다¹⁵⁾. Harnack에 의하면 감독은 사도, 선지자, 교사의 은사적 직분이 사라짐에 따라 생겼으며 장로는 감독보다 후기에 생긴 것으로 본다¹⁶⁾. 이것은 곧 감독, 장로, 집사의 3중적 견해를 취하는

11) *Ibid.*, pp. 181-202.

12) Lindsay, *op. cit.*, pp. 154-65.

13) H. Achelis, *op. cit.*, p. 5. 104. *loc. cit.*

14) *loc. cit.*

15) P. W. Schmiedel, "Ministry", *Encyclopaedia Biblica*,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02ed.), pp. 3135-36.

16) Harnack의 이론에 대해서는 T. H. Lindsay의 인용서 부록을 참고할 것.

9) Lindsay, *op. cit.*, p. 118.

10) J. B. Lightfoot, *Saint Paul's Epistle to the Philippians*, (London: Macmillan and Co., 1885),

자는 특수은사가 있는 것 같이 각자는 이 거룩한 기능의 하나에만 헌신할 뿐이다²⁴⁾.

Philip Schaff도 “가르치는 장로 혹은 목사와 치리장로 혹은 평신도장로의 구분은 개혁주의 교회의 편리한 자색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적 인정을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분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은 동일 직분의 두 기능을 말할 뿐이다”라고 하였다²⁵⁾.

장로교는 처음부터 딤편 5:14의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분리한다. 킬린은 1511년 제네바에서 “제네바교회 교회예식서”(Ecclesiastical Ordinances of the Churches of Geneva)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근대적 의미의 장로교탄생의 시작이다. 여기서 칼빈은 교회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구분하고 장로의 직분은 도덕적 감시의 역할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제네바에서 장로는 시소위원회(Lesser Civil Council) 회원 중에서 임명되었는데 임기는 1년이였다. 그러나 여기서 장로직책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²⁶⁾.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4권 4장 1절에서 장로라고 하는 계급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 또는 교사로서 선택되고 다른 사람들은 불행의 감시와 교정을 임무로 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칼빈은 치리장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독교 강요 제 4권 11장 6절에도 두 종류의 장로를 논하였으나 치리장로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칼빈은 딤편 5:17주석에서도 바울시대에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으며, 모두 가르치는 일에 임명되지 않고 치리하는 자들은 회중에서 선택되어 목사와 더불어 교회치리를 행사하였다고 말한다.

개혁자들 중 루터는 장로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으나 Bucer는 로마서 주석에서 교회직분을 말씀의 목사, 장로, 집사, 박사의 네 종류로 구분했다. Henderson은 칼빈의 치리장로사상은 칼빈이 스트라스버그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 Bucer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²⁷⁾.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 개혁주

24) Lightfoot, *op. cit.*, pp. 194-195.

25) 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p. 498.

26) Ogivile, *op. cit.*, pp. 25-26.

27) G. D. Henderson, *The Scottish Ruling Elder* (London: James Clarke & Co., 1935), p. 19.

의 교회는 치리장로를 발전시켰다. 예를 들면 1561년에 제정된 벨직 신앙고백 제 30조에도 목사, 장로, 집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평신도대표의 치리장로제도는 불란서, 화란, 스코트랜드, 영국, 미국 등의 장로교회에서 채용되고 있다. 치리장로제도는 성경에 나타난 신적 제도로 간주하거나 이 제도가 세워진 것은 또한 치리의 현실적 필요성에서 생겨났다. Henderson이 지적한 것같이 종교개혁 당시 부패한 교회의 정화를 위하여 치리장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치리장로 제도를 발전시켰고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후에 발견되었다²⁸⁾.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치리장로의 기능을 특히 치리에 강조한 점에서 봉사를 강조한 Lindsay와 대조된다. 칼빈은 장로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영적인 정치의 유지를 위하여: 필자주] 교회에서는 초대부터 특별히 풍기문제에 신경을 기울여 단속을 하고 악덕을 벌하며 열쇠의 직분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 세워졌다. 이러한 지위를 바울은 고린도서 가운데서 “다스리는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전 12:28). 또한 로마서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다(롬 12:8). 즉 이것은 지배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며 왜냐하면 그 무렵에 그리스도인은 거의 지배자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의 영적인 통치에 있어서 목사들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바울은 또 디모데서에서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하나는 말씀을 설기는 직분을 가진 장로이며 다른 하나는 말씀의 설교에 종사는 안하지만 교회의 행정에 관계하는 장로이다(딤편 5:17). 이 두번째의 사람이 풍기의 감시와 열쇠의 모든 행사가 맡겨진 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²⁹⁾.

Ⅳ. 치리장로의 기능

치리장로는 치리의 필요성 때문에 종교개혁후에 발전되었거니와 장로의 기능은 치리(다스림)라고 말할때 신자위에 군림하는 주관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 칼빈도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의 기초는 제공했

28) *Ibid.*, p. 19.

29) 칼빈 기독교강요 김 문제 역(서울: 세종문화사, 1979), pp. 434-435.

으나 특히 장로제도에 대해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³⁰⁾. 특히 칼빈이 말하는 치리장로의 기능은 주로 “악덕을 바로잡는 사법권”에 두었다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직분들 중 일부는 일시적인 것이라 단정하고 다만 다스리는 직분(고전 12:8)은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³¹⁾. 물론 치리장로의 기능은 사법권에 비중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장로직이 형성될 때에 그 기능은 복합적이었다. 치리외에 교회와 국가의 교량역할을 했으며 공중기도와 권면, 이단방지, 목사를 도우는 일, 세례인의 권면 등이었다.

16, 7세기 스코트랜드에서는 장로의 역할은 더욱 다양하였으니 곧 교회 뿐만 아니라 그 지역까지도 살피는 일을 했다. 교회가 그 지역의 교육에까지 참여, 지역 학교의 선생도 당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으며 당회가 학교를 방문하였다. 1652년 Aberdown 장로들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기까지 하였으며 1674년 Yester 당회는 장로회측에 따라 학교를 방문하여 선생을 치리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장로의 직책이 교회내의 양떼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까지 살피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국가에서나 가능하지 비기독교국인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하다.

장로의 기능을 사법권에만 둘 때 사람을 높고 낮은 계층으로 생각하는 수직주의적 우리 사회에서 자칫하면 양떼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³²⁾ 이것은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이라는 성경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벰전 5:1이하에서 장로(목사)의 자세와 역할을 잘 말하고 있다.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법권보다 Pastoral care(목회적 돌봄)의 기능을 말한다. 히 13:17에도 양떼들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장로들이 양떼들의 영혼을 보살피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장로의

역할은 양을 치는 것, 인도하는 것, 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³³⁾. 장로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1) 목사와 더불어 치리와 권징을 시행하며, 2) 개교회의 영적 유익을 살피며, 3) 교회를 감독하며, 4) 부패한 교회와 윤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살피며, 5) 개인의 권고로 고치지 못하는 악을 당회에 알리고 6) 병자를 방문하며 7)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8)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며 9) 말씀의 열매가 열렸는지 살피며 10) 목사에게 병든 자, 환난을 당한자를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³⁴⁾. 초대교회의 조직이 본래 봉사에서 시작되었음을 유의하고 목사와 제직들과 더불어 섬기는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Ⅶ. 목사와 장로는 평등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문제를 놓고 서로 분쟁하듯 한국교회도 목사와 장로간에 누가 높느냐하는 문제로 긴장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노회장이나 총회장은 목사의 전유물이 되어 왔으나 이 불문률도 파괴되는 상황에 있다. 미국 연합장로교회에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가 총회장이 될 때 이것은 성직자에 대한 평신도의 승리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울렸던 것이다³⁵⁾. 장로 장립식의 장로권면순서마다 목사는 의례껏 보세의 팔을 든 아론과 훌의 예를 들면서 “목사됨에서 목사의 조력자”로서 일하는 장로상을 역설하여 장로위에 목사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충분한 이유도 있다. 한국 장로교회 정치 원리는 미국의 찰스 하지의 것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는 장로는 목사안수식에 손을 얹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목회직이 권위와 유용성에 있어서 교회에서 첫째라고 하였다. 이것이 목사로 하여금 장로교 교황이 되게 하는 교권주의의 위험이 다분히 내

30) 허순길, “개혁주의 교회정치사에서 본 장로직” 고려신학 대학 논문집 Vol. II, (1933), p. 62.

31) 칼빈, 강요 IV, 3:8

32) Henderson, *op. cit.*, pp. 155ff.

33) L.R. Eyres, *The Elders of the Church*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1975), p. 61.

34)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Virginia: John Knox Press, 1959), Chp. X, 43.

35) Heidemann, *op. cit.*, p. 121.

포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자가 있다³⁶⁾.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 발단 자체부터가 비극이요 **장로와 목사는 권위면에서 동등하다**라고 본다. 미국 남장로교회헌법은 “치리장로는 교회재판에 있어 말씀의 목사인 가르치는 장로와 동일한 권위와 자격이 있다”고(제10장 41절) 하였으며 더우기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재능을 개발하여 목사 부채서 에배인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설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조직신학교수인 존 머레이도 치리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는 전적으로 동등하다고 하였다³⁷⁾. 미국정통장로교회의 Eyres도 장로직에 대한 연구에서 장로와 목사의 차이는 한 직분내의 **기능의 차이**라고 하였다³⁸⁾.

목사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목사만이 안수할 수 있으며, 둘째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 배나 존경받아야 한다(딤후 5:17). 셋째로 봉사는 전문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데 있다. 첫째문제인 목사만이 안수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다. 미국의 J. Thornwell은 장로도 목사에게 안수할 수 있다고 한 반면 Hodge는 이것을 부정하였다³⁹⁾. 물론 안수는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마 9:18; 19:13; 막 6:5; 딤후 5:22 등). 그러나 안수할 수 있다고 피안수자에게 지배자로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사무엘이나 선지자들의 교훈에서 볼 수 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하였으나 권위면에서 사울의 우위에 있지 아니하다. 둘째의 배나 존경받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씀 사역자는 칼빈이 말한 것 같이 태양광선과 밤의 달과 같이 중요하다⁴⁰⁾. 그러나 이것 역시 영적 권위와 축복이지 물리적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다. 성경은 결코 교회직분을 높고 낮은 수직계

념으로 말한 적이 없다.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교훈,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는 말씀은 권위의 우월성을 배격하는 말씀이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는 권위면에 놓고 낮은 것이 아니라 동등하나 기능면에서 차이를 두어야 한다. 장로교정치원리는 장로는 full time의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의 대표로 간주한다. 목사는 직접 소명감에 의하여 자원하면 교회와 노회가 소명과 자격의 적격유무를 확인한 후 안수하나 장로는 자원한다고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를 제비뽑음으로 선출한다. 이점에서 장로선출은 정치원리상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리라기 보다 신정원리(theocracy)로 보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사람들이 깨닫는데(discern) 있다. 회중들은 장로선출에 있어서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목사는 full time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사회자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점에 장로와 차이가 있으며 장로는 동역목사(Co-Pastor)의 정신으로 목사를 보좌해야 한다. 보좌한다는 것이 결코 성경에서 권위상 하위를 의미하지 않고 기능상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장로가 목사에게 순종한다 할 때 그것은 목사가 권위상 우월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는 교회일에 있어서 전문가(professional)요 장로는 비전문가(non-professional)라는 입장에서 순종함이 좋을 것이다.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자요 비전문적이기 때문에 인도와 미국의 일부교회에서는 장로에게 안수하지 않으며 17C 영국의 신학자 George Gillespie도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은 교황사상이요 만기독교라고 정죄하면서도 치리장로에게 안수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James Guthrie도 안수, 출교선언, 사면 등은 목사에게만 속한 권한이라고 하였다⁴¹⁾

Ⅱ. 장로의 임기제

현 우리교단을 위시한 일부 장로교회에 장로선입투표문제가 논쟁의 불

36) Soon Gil Huh, *Presbyter in volle Rechten* (Groningen: Vitgeverij) "Pe Vuurbaak", 1972), p.203.

37)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2(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 p.355.

38) Eyres, *op. cit.*, p.4.

39) Soon G. I Huh, *op. cit.*, p.199.

40) 칼빈, *op. cit.*, IV, 3:2

41) Henderson, *op. cit.*, pp.189-191.

씨가 되고 있다. 어느 노회에서는 목사들이 문제되는 장로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로시무투표를 요구하자 장로측은 임시목사에게 매년 시무투표를 요구함으로써 목사측이 일부 후퇴하였다고 한다. 분명 이것은 교회정치의 오용내지 악용이라해도 과인이 아닐 것이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정치문답조례 97문에 장로의 임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장로의 임기는 종신까지”라 하였으나 49문에서 “시무하는 기한을 정하고 장로를 선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시무할 기한을 정하고 장로나 집사를 택할 수 있나니 이 두직은 종신직이라도 常任할 이유가 없느니라”고 하였다. 제 494문에서는 “輪回시무하는 반차와 기한을 정하고 장로를 택하였다가 그 방침을 변경하여 시무기한을 없이 할 수 있으나 경솔히 행치 말 것이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를 가려잡아 영구준행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하였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러한 임기제장로(term eldership)에 대해 “할 수 있느니라”는 자세로 신축성(?)이 있었다. 그러나 임기제장로가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으나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다. 서구의 일부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임기제 장로직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란교회는 처음에 장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마다 반씩 교대하다가 후에 4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화란식 임기제를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중하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정치와 행정에서 성경의 원리와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해야 한다. 한 마디로 임기제장로제도는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구식 장로시무투표제를 무조건 도입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로 첫째 화란교회는 장로장립에 안수가 없다는 점이고, 둘째 화란에서 장로의 역할은 주일대예배 공중기도와 사법권만 한번씩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동역자(co-pastor)로서 설교와 교육등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장로직을 종신으로 계속하기에는 시간과 정력의 소모가 너무 많아 자기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중함으로 윤번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가 교회봉사에 과중한 부담을 지는 자가 극히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 나쁘게 말하면 적은 봉사, 많은 권력주장이 나타난

다는 것이다. 제제로 임기제는 안수의 정신과 배치된다. 장로교 정치원리는 안수는 종신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장로장립식에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 평생을 바친다는 서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종신직을 당사자가 무독이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임 혹은 휴무를 원하든지 도덕과 윤리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때 정당한 치리에 의하여 직을 중지시킬 수 있지 무조건적 임기제나 시무투표제는 안수의 기본정신과 위배된다고 본다. G. Gillespie도 장로의 임기제를 반대하고 목사와 같이 종신직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연령에 의한 중지와 구약의 배위지파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쉬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⁴²⁾. 존 머레이도 “일정기간 동안 장로로 안수하는 사상은 신약이 인정하지 않으며 선택과 안수의 정신과 배치된다”⁴³⁾고 하면서 “장로의 은사가 일시적 성격이 아니다”⁴⁴⁾고 하였다. 그는 또한 임기제장로를 세운다고하면 임기제목사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그는 장로와 목사간에 불필요한 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치리장로에게 임기제를 실시하는 것은 장로직의 기본적인 통일성과 특히 정치문제에서 모든 장로들의 완전한 동등성을 깨닫지 못하는 불건전한 교직주의(Clericalism)의 유물”⁴⁶⁾이라고 하였다. 그는 임기제장로를 다음의 실제적인 이유로 반대하였다:

- 1) 이 사상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임기간은 시험기간이란 인상을 준다.
- 2) 이것은 장로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 책임감을 감소시킨다.
- 3) 이것은 일의 연속성, 책임감 및 안정감을 해친다.
- 4) 이 제도는 나쁜 장로 뿐만 아니라 좋은 장로도 배제할 수 있다.
- 5) 이 제도는 당파와 분쟁을 초래한다.
- 6) 이 제도는 교회정치가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42) *Ibid.*, p. 189.

43) John Murray, *op. cit.*, p. 351.

44) *Ibid.*, p. 353.

45) *Ibid.*, p. 354.

46) *Ibid.*, p. 355.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정치는 신정정치임 : 필자주)

7) 이 사상은 장로직은 돌아가면서 해야한다는 사상을 조장한다⁴⁷⁾.

물론 장로의 종신직이 포괄하는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로 직무투
포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

첫째, 교회의 간부직이라는 권위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

둘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목회형태도 다양성과 유동성이 요구된다. 연
로한 장로들은 사고가 고정적이어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약하다.

셋째, 유능한 청년층의 등장을 막을 우려가 있다.

넷째, 그릇된 사람을 평생 장로로 모셔야 한다는 선택의 잘못을 지적할
방도가 없다.

다섯째, 교회내의 영구적 통치단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점은 제도로서 보다 기본 정신과 실천에 의하여 시
정되어야지 이상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원리상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
를 시행할 때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됨을 이미 지적하였다. 오직 사랑으로 중
노릇하는 성정의 교훈이 실천될 때 문제점은 축소 혹은 취소될 것이다.

Ⅶ. 결 론

장로교회의 치리장로제도는 딤펬전 5:17에 근거하여 초대 교회에서 시행
된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장로정치가 중세 1500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교회정치도 그 시대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초
대 교회 이후부터 로마의 세속정치가 교회정치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이고
신정주의적인 장로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교권주의적 감독정치와 교황정
치가 지배했던 것이다. 종교 개혁 때 장로정치가 부활된 것은 평신도의 만
인 제사장원리에 의하여 평신도의 중요성을 발견한 데 있으며, 치리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장로직은 사법권 행사도 중요하거니와 봉사적 기
능도 중요하다. 현대교회론은 교회의 기능으로 섬기는 역할을 강조한다.

장로도 목사와 더불어 양떼를 보살피는 Co-pastor의 역할을 해야 하며 배
로는 교회일에 전문가인 목사의 조력자로서의 기능도 중요하다. 19C 미국
교회에 아론과 홀협회가 장로들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목사들을 격려하
고 조언하며 또 건설적 비판을 하였다.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도 목사를 견제
하기 위한 "장로회"가 아니라 아론과 홀협회가 같은 건설적인 장로회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목사들 또한 장로를 목사의 시녀로 취급하는 주관자의
자세를 버려야 할 때가 왔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
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
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율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
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
의 본이 되라"(벧전 5:1-3)

47) *Ibid.*, pp.355-356.